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5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동게스와리에 발들 열풍이 불다 | 임지혜
- 10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을 마치고 | 송현자
- 13 **쭈리읍쑤어, 캄보디아**
벌써 일년..? 새내기 활동가의 활동 일지 | 박성신
- 16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오성근
- 19 **망글라바, 미얀마**
미얀마와 JTS, 서로 사랑에 빠지다 | 김성현



국내소식

- 22 **함께 나누는 사랑**
북한 수해 긴급구호 식량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 편집부
봉사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나누는 '대화' | 채우빈
- 28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 편집부
- 30 **캠페인**
작은짜이집의 뿌리 JTS 일일 짜이 부스 | 김민정
- 33 **특별기획**
JTS의 소리 | 편집부
- 35 **캠페인**
2012 JTS 3대 뉴스 | 편집부



활동터소식

- 36 **해외, 국내 JTS 뉴스**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42 **후원인의 소리**
- 44 **나눔회원소식**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2. 11. 12 퍼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퍼낸터 JTS 도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김혜원, 최지정, 김진진, 문태훈, 최양희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687-8756 / 후원문의 (02)687-8995 팩스 (02)6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여는 글

어느덧 2012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소중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받으셨는지요? 2012년을 마무리하며 저희 JTS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우선 해외사업장 소식은 2012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올 한 해를 정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뿌듯했던 일을 주제로 전달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해외사업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늘 궁금하셨던 분들께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인도 JTS로 파견되는 새 해외활동가들의 출국 전 인터뷰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국내 소식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JTS가 해 온 여러 일들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3대 뉴스를 투표로 뽑아 보았습니다. 2012년 JTS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JTS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수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12년에도 물심양면으로 JTS를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 국내 JTS 사무실에서 불철주야 함께 했던 자원봉사자님들,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해외 활동가님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합니다.” 라는 JTS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저희 JTS는 다가올 2013년에도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복된,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사진 / 둥게스와리 부녀자 재봉반 졸업식 단체사진



둥게스와리에
발틀 열풍이 불다

지독히도 더웠던 2012년 여름, 인도 둥게스와리에서 부녀자 재봉반이 시작됐다. 더위도 유난히 심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 곳 주민들과 함께 교육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전 봉사자들의 말을 듣고 난 후라 시작부터 걱정이 태산이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임지혜 활동가

걱정이 된다고 일을 미룰 순 없지 않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 회의의 거듭하고 거듭해 세 가지 '초대박 혜택'을 완성했다.

첫째, 시작 전 예치금을 300루피(약 6,000원) 받아 교육이 끝날 때 출석률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돌려준다.

둘째, 졸업 작품으로 유치원 교복(셔츠, 바지, 치마)을 만들어 제출하고 재봉 선생님과 학생들의 평가를 거쳐 1등에서 4등까지 재봉틀을 선물한다.

“기본 30분은 일찍 오는 열성적인 학생들 덕분에
여유로운 아침은 날아가 버렸다.”

셋째, 위의 상 받은 네 명에게는 당일부터 유치원 교복을 만들어 수자타 아카데미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다. 또한, 상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도 연습을 더 해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유치원 교복 납품이 가능하다.

등록일, 걱정과는 달리 초대박 혜택을 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선 시험 삼아 수자타 아카데미 주변 세 마을 주민들을 위주로 선발했다. 그리하여 총 12명의 '등게스와리 부녀자 재봉반'이 꾸러졌다.

수업 첫 날, 아무리 기초반이라지만, 재봉틀용 바늘과 손바느질용 바늘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 또다시 걱정이 됐다. 세 달 과정으로 졸업 작품을 모두 다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닐까? 걱정은 걱정일 뿐! 학생들의 실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아졌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하루 2시간 잠깐 연습할 뿐인데 신기할 정도였다. 바늘에 실도 끼우지 않고 재봉발판 구르는(여기 재봉틀은 아직 발틀이다.) 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일주일이나 지나 갔을 땐 사리(인도여성 전통 옷) 본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곳 사람들은 이런 손재주를 타고 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시스터~재봉실 문 열어 주세요.”하며 기본 30분은 일찍 오는 열성적인 학생들 덕분에 여유로운 아침은 날아가 버렸다. 재봉실 문을 열고, 당일 사용할 실과 천을 꺼내어 주려할 때면 “까플라 아차알라 디지예(천, 좋은 걸로 주세요!!!!)” 아침마다 이들의 아우성에 매일같이 혼이 쏙 빠졌다. 11시 쯤 수업종료 시간이 되면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라는 통에 점심시간이 늦어지기 일쑤였다. 사실 그럴 땐 그들이 미웠다. ‘아, 나의 황금 같은 점심시간!!!’ 하지만 집안일이 많아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문화라 큰 소리 한 번 못내는 그들에게 아지트 같은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불평은 사라지고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학생, 한 명은 들쳐 메고 한 명은 손을 붙잡고 두 아이를 데려오느라 힘들텐데도 환하게 웃으며 저 멀리서부터 ‘시스터~!!’ 하며 반갑게 손 흔들면서 다가오는 학생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 여기서 짧게 재봉반 학생들(어머니들)을 몇몇 소개해 드리겠어요.
올리비아 핫세를 닮은 링구 데비(결혼 한 부인을 일컫는 인도말!) 작년까지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였던 아르준의 부인입니다. 처음부터 재봉을 할 수 있었던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실력까지 겸한 팔방미인이죠.

까칠함이 매력인 라비엄마 리나 데비! 수자타 아카데미 최고 말쑥꾸러기인 라비 꾸마르의 엄마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침 일찍 병원에 가는 날에도 수업은 빠지지 않고 오는 강한 여성이죠. 불평과 요구사항이 가장 많아 알미울 때도 있지만 재봉 실력만큼은 재봉 선생님도 인정할 수준입니다.

임신 10개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20분을 걸어오는 란주 데비! 재봉 연습을 하는 중간 중간 멍하게 앉아있어 왜 그러느냐 물으면 진통이 느껴진다고 말했던,, 재봉 수업 중간에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닐까 속으로 조금은 걱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대단한 열성을 보였죠.

소아마비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니따 데비! 저 멀리서부터 절뚝거리며 오는 모습을 보노라면 힘들진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 누구보다 밝은 아니따 데비. 약간은 덜렁대지만 누구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죠.

10살의 어린 나이로 학교 대신 재봉 기술을 배우러 온 칸티 꾸마리(여자 아이를 일컫는 인도말!) 아주머니들의 이런저런 농담들을 들으며 늘 수줍게 웃으며 조용히 착실하게 수업을 따라 갔던 어른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칸티!



유치원에 납품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 (니투, 아니따 데비) 수료증을 받아들고서 (니투, 아니따 데비)

“기대 없이 졸업 작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모든 학생이 작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위의 다섯 명 외에도 각자의 개성이 뛰어났던 등게스와리 부녀 재봉반. 하하하, 호호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세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졸업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아쉬운 듯 한마디씩 했다. ‘연습할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우리는 푸자(인도의 축제)기간에도 나와서 연습할래요.’ ‘두 달만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등 그들에게 수업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가 전해져 왔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은 진행되었고 졸업식 전 날이 되었다.

솔직히 세 달 만에 치마, 바지, 셔츠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기대 없이 졸업 작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모든 학생이 작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 상급생 여학생들과 인도인 스태프 재봉 선생님 그리고 몇몇 한국인들이 채점을 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3시간 정도를 보고 또 보고 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졸업식 당일!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학생들. 얼마나 설레는 지가 한 눈에 보였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기도 전부터 왁자지껄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해 둔 소량의 간식을 보면서 행복해 하던 사람들. 더 준비하지 못해 살짝 미안했다.

각 마을 대표와 학생들 인도인 스태프 그리고 한국인들을 초청한 행사는 시작되었다. 놀라운 결과가 시작부터 발표 됐다. “전원 수료!!” 학생들 전원이 80퍼센트 이상 출석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평균 94퍼센트 출석률을 달성했다. 인도 JTS에서 주민들 상대로 한 사업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학생들에게 JTS India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시골 부녀자들은 처음 받아드는 수료증을 정말 소중히도 가슴에 품어 들었다. 졸업선물, 개근상과 정근상을 모두 전달한 뒤 이 날의 하이라이트 1등부터 4등이 발표됐다. 순간 희비가 엇갈렸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담긴 볼멘소리가 잠시 나왔지만 금세 축하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상을 받은 네 명의 학생은 유치원 교복을 제작하여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교복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지원되고 오직 기술력만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한 벌 당 18루피(약 320원)를 받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칸티 꾸마리가 그 네 명 중 한명이다. 재봉틀이 없어서 집에서는 연습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면 재봉틀을 가지고 가면서 함박웃음을 보였다. 기술자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정성

껏 교복을 만들어 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지 모른다. 처음 납품을 하고 받은 돈으로 무얼했냐고 물었더니, 특유의 수줍은 미소를 띠며 ‘실이랑 바늘 샀어요. 시스터’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수상자들은 직접 번 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짤레비(인도 설탕과자의 한 종류)를 사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부녀 재봉 기초반이 끝난 지금은 중급반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기초반이었던 사람들 중 원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업이다. 상을 타지 못해 아쉽지만 당장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중급반에서 좀 더 배우고 연습하여 일정한 수준이 되면 교복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여름이 살짝 지나간 시원한 지금 등게스와리는 지독했던 지난 여름보다도 열심히 밭들을 갈리는 부녀자들로 더 뜨겁다.



재봉틀을 받아가는 니투, 레카 데비

사진 /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을 마치고

201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키드논 주, 리보나 시에 위치한 JTS 센터에서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다물록 시에서 6명, JTS에서 5명, 총 11명이 함께 2012년 시작된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진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송현자 활동가

10월 22일 저녁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다물록 지역에서의 JTS 활동 영상을 보았습니다. 4월 초에 있었던 3개 학교- 키타스, 발라, 바삭 준공식, 마카파리 고등학교 착공식, 고등학교와 보건소 건축 시작, 교사 워크숍, 5월, 6월 연달아 진행된 한방 의료봉사, 블루안과 키다마 학교 증축 공사 시작, 1박 2일 방문 프로그램과 같은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 타퓨난, 인라보 학교 신축 공사 등 화면에 나오는 활동들을 보는 참가자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다물록 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다물록 주민의 모습, 자신의 활동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일과 22일 오전에는 2013년도 신축 학교 후보지 답사를 하고 마카파리 고등학교와 보건소 건축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열리는 JTS 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다물록 시 참가자들도 다물록에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일찍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23일 아침 5시 30분, 체조를 하고 센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필리핀 JTS 현지 활동가인 미오는 참가자들에게 퇴비장, 이동식 닭장, 돼지, 염소, 외양간, 비닐하우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시범 농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실험에 대해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올해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교훈을 얻어서 다음 프로젝트를 잘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은 추가 자재 요청이 계속되고, 어떤 경우에는 JTS에 사전 보고되지 않고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JTS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JTS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물록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더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을 놓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디자인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 JTS에서 작업방식 변경을 요청하여서 자재가 더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구입한 자재에 대해서는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 자재를 바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물록 시에서는 보고나 의사 결정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다물록-JTS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논의를 통해 다물록 시와 JTS는 모든 프로젝트 진행을 최고의 품질로 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하자는 데 목적을 같이 하고 계획을 더 세심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며 그에 따른 평가를 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했고 결정하는 회의를 바쁘더라도 매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물록에서는 회의 2-3일 전에 공사 진행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고 JTS에서 검토, 준비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진 / 다물록 프로젝트를 함께한 사람들

사진 / 완공된 마카피리 고등학교



사진 / 워크숍에 참가한 필자 송현자

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때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JTS 다물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제시는 '팀워크'를 말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직분에도 불구하고 회의마다 참석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다물록 시장님은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노력으로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야외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잘 지어진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다물록 사람들의 위생보건도 한 단계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필리핀JTS가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한 현장에서 JTS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물록 프로젝트에 관한 소감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자재관리 담당인 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왔고 이런 워크숍을 하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물록 시 엔지니어는 '맞추기'를 언급하였습니다. 회계 담당인 인다이는 '이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일을 했다는 공사감독 기술자 올리노는 '신뢰'를 말했습니다. 약해진 체력

운전사가 기부해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마을 사람들



벌써 일년...? 새내기 활동가의 활동 일지 from 캄보디아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로 박병수, 박성신 활동가가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활동한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어가네요. 다음은 박성신 활동가가 보내온 활동 일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박성신 활동가

JTS 캄보디아 활동가 박병수 박성신(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2012.4.19 첫 마을 방문 주민 참여 조사를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다. 병수와 내가 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마을 방문을 하는 첫 날이기도 하다. 기대와 두려움이 반씩 교차하는 요상한 기분!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마을들은 모두 강 건너 마을들이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 반이나 달리고, 또 조각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오지 마을들. 이렇게 교통편이 어려운 마을들은 다른 단체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NGO천국인 캄보디아인데도 아직 학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보람이 생기기도 하지만 :) 조각배를 타고,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숲 속을 걷고 등등... 산 남고 물 건너 바다 건너 (!) 도착한 마지막 마을 따백으로움. 마을 회관에 들어가니 이런, 개미 한 마리도 없다. 한국인과 캄보디아인들의 시간관념은 아직 많이 다른 탓에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괜찮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빨리빨리 재촉하지 않아도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 이곳에 와서 매일 배우고 느끼는 것들 중 하나이다.

2012.4.26 첫 프놈펜 출장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으로 출장가는 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무섭게 소나기가 내리더니, 곧 들판 저 끝에 환하게 무지개가 떴다. 일 년 넘게 살았던 분들도 보기 힘들다는 무지개가 무척 예쁜 모습으로 나에게 인사해주는 것이다. 올해 사업 무사히 잘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동기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 무척 기뻐다.

2012.7.27. 폭풍이 지난 후 어제 병수랑 싸웠다. 그래도 한발 물러나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화해했다. 화해의 선물일까? 자재를 매우 싸게 계약해서 기분이 좋다.

병수에게 미안한 마음에 점심에 스페셜 요리를 했다. 병수가 울었다. 내가 한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순간일 뿐 모두 스쳐지나가는 것, 재미있는 인생이다.

2012.8.7 마을로 가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성질 급한 나도 캄보디아에서 4개월 넘

땅아마을 13살 렉카라는 소녀



게 지내다보니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졌다. 쉬어가서 좋지 뭐~ 단잠을 잘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3개 마을에 가서 주민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학교 건물이며 우물, 교사 숙소 등의 장소도 정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했다. 처음으로 우리가 주문한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로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실감에 마음이 찡했다.

땅아 마을에서 렉카나라는 13살 소녀가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자기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줘서 고맙단다. 눈물이 핑 돌았다.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2012.9.10 JTS의 엔지니어 Mr.Bunthan이 시멘트 믹서 기계를 써야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다며 기계를 기부해주었다. 운전기사 형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티셔츠를 기부해주셨다. 일하러 나온 주민 모두 기뻐하며 입어 보았다. 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 신기하게도 우기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 달만에 첫 기둥이 올라갔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2012.10.18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나는 남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짜증과 스트레스로 "난 피곤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별명은 "넘 신난다"이다. 캄보디아가 나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리쓰 생일날, 리쓰 부모님과 링링과 함께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곳 인니에 온지 어느 새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반년이란 시간에 이곳에 대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느낀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처음 “고마운 사람”이란 주제로 소식지 원고를 요청받았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인도네시아 JTS를 도와주는 현지 봉사자이자 내 친구들인 세 여자. 오늘은 이 세 여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오성근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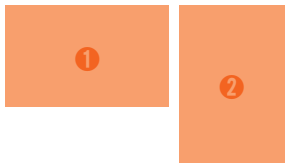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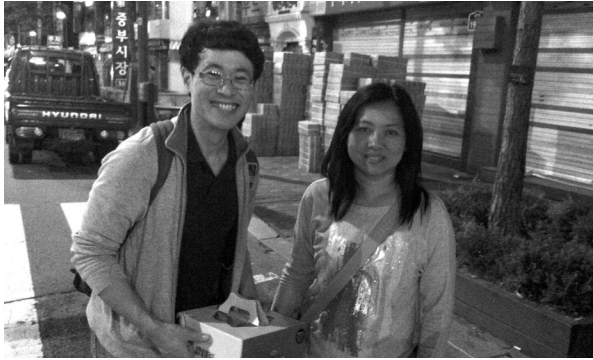
내가 이들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은 2009년 서부 수마트라 대지진 때이다. 그때 나는 JTS활동가가 아닌 한 사람의 후원자로, 소식지를 통해 그들이 JTS 긴급 구호팀을 도와주었다는 소식과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 내 친구들의 이름은 리쓰, 주이따, 링링이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4% 미만의 소수계인 화인(흔히 말하는 “화교”로, 공식적으로 2세대 이상이 지나서 현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화교”가 아닌 “화인”으로 불리운다.)이자, 화인 중에서도 소수인 불자들이다. 서부 수마트라 지역 인구의 거의 100%가 무슬림이며 미낭 까바우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종교적·인종적으로 아주 소수자인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인들은 전체 경제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외 모든 분야에서는 사실상 배제되는 “2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1998년 반화인 폭동에서 나타났듯 인도네시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반화인 정서로 인한 차별로 인해 약간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

큰 언니 격인 리쓰는 내년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현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한약방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2009년 대지진 긴급구호 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JTS 봉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우리 JTS 긴급구호 팀과 함께 현장에서 통역과 구호물자 분배를 맡았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JTS가 긴급구호 활동을 했던 지역은 15년 전 화인 3가구가 현지인에 의해 몰살당하고 화인들의 불교사원이 파괴된 후 모든 화인들이 떠난, 화인들에게는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그러한 위협에도 리쓰는 헌신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도와주었고, 현재도 인도네시아 JTS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인 활동가들을 가족같이 생각해서, 가족 행사에 초대해주고 음식도 챙겨주고는 한다. 일요일이면 같이 등산도 가는 절친한 친구이다.

나보다 한 살 많은 링링은 시내에서 죽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새벽에 열어서 점심 때 마치기 때문에, 오후에는 JTS 행정업무를 많이 도와준다. 새벽부터 혼자 일하느라 무척 피곤하고 또 현재 게스트 하우스 영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도 JTS가 처음 이곳 부끼땡기로 이사 와서 지역정보가 없을 때 생활이 안정되도록



① 주이따가 잠시 한국에 여행왔을때
② 필자 모습

많이 도와주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내 분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JTS의 소중한 정보원이자, 개인적으로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이 편안한 좋은 친구이다.

나와 동갑인 주이따는 18살 연상인 아관씨와 일찌감치 결혼하여 인형같은 두 딸 4학년 섀센과 3학년 잉잉 두 딸을 두고 있다. 이 부부 역시 2009년 긴급 구호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중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을 때 선뜻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내준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하다. 현재 추진하는 빗물 활용 프로젝트에도 이곳저곳 자재를 알아봐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기도 한다. 귀엽고 애교 많은 주이따와 약간은 차가운 듯 하지만 화통한 아관씨는 늘 JTS 활동을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하며 도와준다.

이 친구들이 JTS 활동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것도 무척 고맙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정'이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인도네시아인들과 달리 화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 문화를 가

지고 있는 것 같다. 비슷한 동북아시아인의 기질 덕분인지, 아니면 이들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는 "관시(關係)"문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순박한 시골의 정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나의 꿈은 이들과 더불어 인니인들과 화인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사회 발전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인니인으로부터 비판받는 화인, 그리고 비주류인 화인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받는 인니인, 우리 JTS가 화인들이 인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인니인이 화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리쓰, 주이따, 링링 이 세 친구들이 이 활동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여기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무엇보다 좋은 벗들을 얻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미얀마 자원봉사자
김성현, 썬썬, 싸치

미얀마와 JTS, 서로 사랑에 빠지다

조용한 미소의 나라 미얀마... 그러나 JTS 미얀마 사무실은 그다지 조용하지 못하다. 출근시간보다 30분이나 더 일찍 도착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오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연신 나에게 사무실이 더럽다며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얼른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대걸레라도 빨아서 바닥을 닦아야 한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김성현 활동가



미얀마 자원봉사자 - 째진민

그렇게 청소를 마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금세 서로 웃고 떠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지만,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빵빵 터지는 걸 보니,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나마나 오늘도 안 씻은 것 같다니,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니, 청소를 도무지 안 한다는니 하는 얘기일 것이다. 당연히 전부 거짓부렁이지만, 그렇게 나를 소재로 삼아서라도 좀 더 현지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새 근무 시작 시간인 9시 30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갑자기 진지해져서 필기구와 공책을 꺼내고 내가 아침 회의를 시작하길 기다린다. 가끔은 그들의 진지함에 부담스러워 질 때도 있다.

현재 미얀마 JTS는 상근 자원봉사자 7명과 비상근 엔지니어 자원봉사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얀마 자원봉사자들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부탁했던 것,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을 양곤대학교와 시내의 Language School 곳곳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JTS 사무실이 미얀마의 실질적 수도인 양곤에 위치해 있는 것과 미얀마에 한류 바람이 부는 것이 보다 많은 미얀마 사람들의 눈길

을 끄는 데 일조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JTS 자원봉사로 향하게끔 움직이게 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미얀마인의 심성”과 “JTS의 특성”, 이 두 가지가 서로 통하게 되면서 미얀마 JTS 사무실이 현지인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먼저 미얀마인들은 대가 없이 자진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좋은 일도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권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심성이 있다. 심지어 자기가 아는 지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 즉 기부나 봉사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도 그 일에 경쟁하듯 참여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질투도 한다. 혹자는 그것이 미얀마 특유의 불교 문화 때문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2008년에 13만여 명이 희생당한 태풍 나르기스를 시점으로 이러한 봉사와 기부 문화가 미얀마사회에 널리 퍼졌다고도 한다.

이러한 미얀마인들의 심성에 더불어, JTS의 “대가 없이 마음으로 봉사한다”, “해외파견자는 현지인 기준으로 산다”라는 JTS만의 특성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JTS를 신뢰하게 하며, 결국 그들의 마음과 동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나르기스 이후에 많은 NGO단체들이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외국 NGO의 활동은 미얀마인들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대개 미얀마인들은 NGO 직원들을,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좋은 차나 항상 택시를 타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항상 몸에 두르고 있는 소위 ‘인터내셔널한’ 풍모가 마구 풍기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떠올린다.

그러나 JTS 활동가는 늘 버스를 타고, 현지인들처럼 입고 다니며, 도시 주민이 아닌 가난한 마을의 현지 주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동화되고자 노력한다. 입을 열지 않으면 어딜 가도 현지인처럼 취급되는 걸 모습에, 마을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포크 대신 마을 사람들처럼 오른손으로 밥을 모습에,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JTS 프로젝트 매니저 까시네, 까시네!” (의역하면 짬돌이, 자린고비 등)하고 놀리면서

도 자신들의 친구를 하나 둘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자원봉사를 하게끔 만든다. 결국 미얀마인들의 마음과 JTS의 마음이 꼭 맞아 떨어지고 서로 감동을 주는 곳이 미얀마이다 보니, 미얀마 JTS 사무실에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일이 일사천리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현지인 자원봉사자 간에 의견이 달라서 분위기가 냉랭해 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한국과 미얀마의 문화 차이로 업무가 지지부진해서 서로 답답할 때도 있다. 게다가 덜 가진 사람이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얀마도 마찬가지여서, JTS 미얀마의 자원봉사자들도 겨우 겨우 교통비만 마련해서 사무실에 나오는, 그리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하물며 보수적이다 못해 폐쇄적이기까지 한 미얀마의 문화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에 더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집에서 1시간을 걸어 나와서, 만원버스를 1시간 더 타고 와야 사무실에 도착하는 여성자원봉사자 짜치(Zar Chi)와 이카잉(티 Khine)은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친척집에서 지내면서까지 매일을 꾸역꾸역 사무실에 나오고 있고, 군대에서 11년을 복무하고 제대한 째진민(Htan Zin Minn)은 군인연금을 교통비로 쓰며 3살차이 나는 조카 씨투(Si Thu)와 매일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퓨(티 Phyu)는 틈틈이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오는 차비를 마련해서 봉사활동을 나오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는 쉰쉰(Su Su)는 남편이 NGO일을 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연신 나에게 No Problem 이란다.

이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미얀마 JTS는 여러 가지 색깔의 자원봉사자들이 각기 다른 어려운 환경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로소 조금씩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고 있노라면 곧 마



미얀마 자원봉사자 - 짜치, 이퓨, 이카잉, 꼬표



미얀마 자원봉사자 - 씨투, 포초, 째진민

라톤 선수처럼 힘차게 뛰는 미얀마 JTS가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많은 일을 하는 만큼, 많은 부침이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JTS의 마음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과 일맥상통해서 굳은 의지를 만들어 내니,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애써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미얀마 JTS는 오늘도 그 길에서 걸음마를 했다. 마라톤 선수의 마음으로.



북한 수해 긴급구호 식량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글 편집부 | JTS

세상에서 가장 먼 그곳, 북한

세상 사람 모두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곳,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바로 북한입니다. 이곳의 날씨가 어느덧 쌀쌀해지듯, 북한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갈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매서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북지원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천항에서 선적식 하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9월 18일(화) 18시 인천항을 통해 북한 수해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한 구호식량인 밀가루 500톤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북한 고아원 어린이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두유와 이유식을 실어 보낸 이후, 2012년 들어 JTS가 진행한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밀가루 500톤을 실은 컨테이너 28개는 인천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번에 JTS가 제공하는 긴급구호 식량 500톤은 수해피해가 컸던 평안남도 성천군과 안주시로 보내져, 성천군에 200톤, 안주시에 300톤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심각한 북한 수해 상황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태풍 등으로 인해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홍수로 169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0명이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수 등으로 약 6만 5300ha가 피해를 입었고, 약 8600채의 가옥이 훼손되었으며 약 21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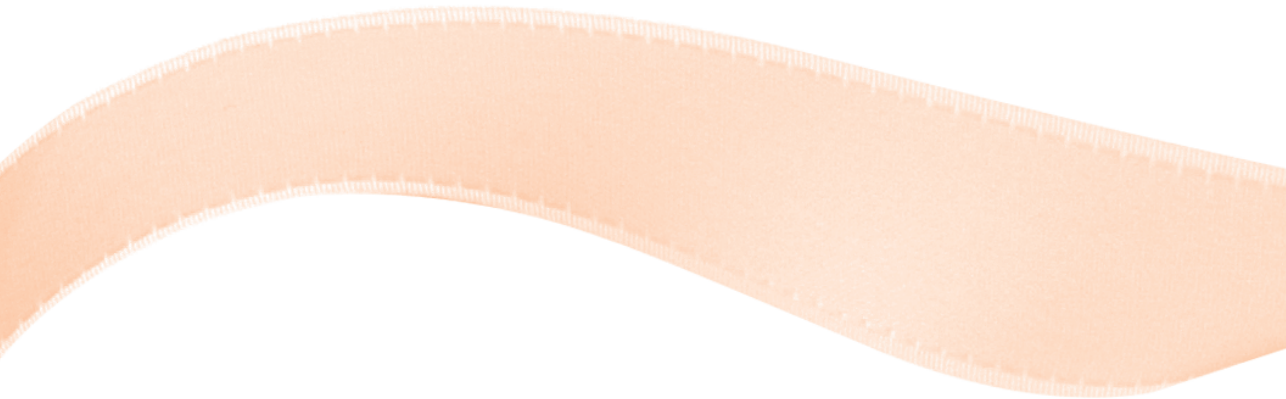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기구와 단체에 태풍 및 홍수피해지역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엔에 식량 및 연료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인도적 식량 지원조차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2012년 여름의 심각한 가뭄에 뒤이어 홍수와 태풍이 연이어 닥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에, 가장 필요한 기초 식량 지원이라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노인

연이은 재해로 북한의 가을 수확량이 급감하고 식량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등 북한 내에서도 소외된 시설은 외부의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량난이 심해질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S의 지원에 추가 지원과 타 단체의 지원 역시 뒤를 이어, 북한 전역의 수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통 역시 덜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TS의 소망은...

현재 JTS는 북한 전 지역에 걸쳐 고아, 장애인, 노인 등 북한에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 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체육용품, 의복 등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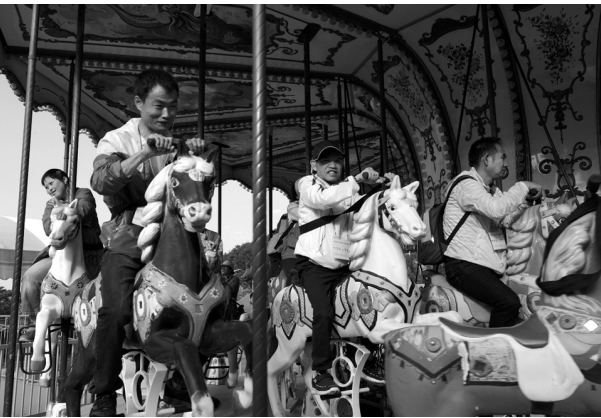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지 못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꼭 식량 지원이 가능해져서 올 겨울, 북녘의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나누는 '대화'

'어떡하지? 어디 몸이라도 아프면 좋겠다. 천재지변 같은 거 안 일어나나? 여름에는 태풍도 많이 오더니 지금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날씨는 좋은 거야?'

글쓴이 채우빈 활동가



놀이기구 탑승



레크레이션 시간

통도사 순례를 가기 전 날, 내 마음은 심란, 복잡, 불안, 두려움 그 자체였다. 법륜스님께서 거제 애광원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과 통도사 순례를 가시는데, 나는 그 순례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문제는 내가 당일 레크레이션 및 동굴 관람 시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장애인과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큰 스승님이신 법륜스님 앞에서 진행을 잘해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조급함이 들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느 순간, 봉사는 뒷전이고 '진행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애광원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혹시 난동(?)을 피우면 어떡하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에 빠져 밤새 뒤척이며 보냈다.

드디어 통도사 순례날! 기어이 아침은 오고야 말았다. 거제 봉사자 분들과 함께 통도사로 향하면서, 떨려오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통도사에 도착해, 스텝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애광원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서는 애광원 버스를 보며, 봉사자 분들은 각자 자신의 짝꿍이 될 애광원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처음 보게 된 애광원 친구들은 나의 기대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낯선 사람을 보며 수줍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먼저 와서 반갑게 손을 잡는 친구도 있었다. 그 모습들이 영락없는 내 주변 친구들의 모습이거나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분명, 나랑 같이 간 거제 봉사자분들도 오늘 처음 장애인들과 만나는 자리였음에도 나처럼 당황하는 기색이나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자연스럽게 밝은 웃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며 가볍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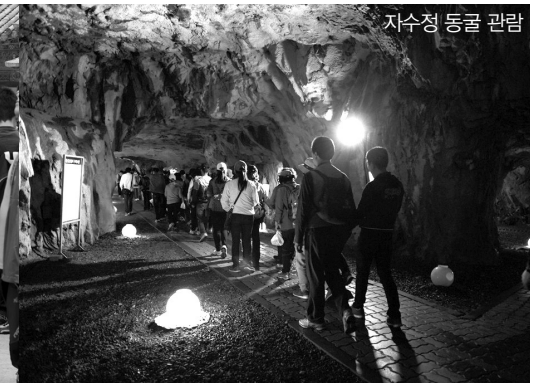
매일같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며 강연을 해 나가시는 법륜스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애광원 친구들은 너무나 좋아하며 스님을 껴안기도 하고, 손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누구 하나 스님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스님께서서는 통도사 경내를 도시며,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손을 꼭 잡은 봉사자와 애광원 친구들이 스님의 뒤를 따르며 주의 깊게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존재가 열등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는 다만 다를 뿐입니다" 예전 법륜스님의 법문에서 들었던 말이



설명 듣고 있는 모습



자수정 동굴 관람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되는 순간이었다. 평소에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했던 나의 밑바닥을 확연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레크리에이션과 자수정 동굴 관람 진행은 여러 보살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진행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참여해준 모든 분들이 진행자였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저녁시간, 애광원 친구가 그날 자신의 짝꿍이었던 봉사자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았다. 봉사자도, 그걸 지켜보는 나도, 순간 당혹감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나중에 나누기를 하면서 그 봉사자님께서 "내가 더 잘 살피고 배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내가 봉사를 '한' 게 아니라 봉사를 '받은' 느낌"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 또한 고개가 끄덕여졌다.

왜 그동안 연예인이나 지인들이 봉사를 다녀와서, '오히려 내가 더 봉사를 받고 왔다'라고 말했는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란, 어느 한쪽만 말하는 '독백'이나 '지시'가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주고받는 '대화'이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



통도사에서

정이다.

참된 봉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 제이티에스와 우리 영남지역 보살님들, 법륜스님, 애광원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땐 날씨가 청명하기를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10월 29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홀연히 떠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JTS로 새롭게 파견되는 활동가 박성재, 최동호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인도 JTS의 든든한 기둥이 될 두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과 생활의 기준이 돈이 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생각에는 막연히, 공무원을 하면 수입이 안정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공무원이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법륜스님의 '무시무중'이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는 생각에 머리가 띵 해졌습니다. 그 길로 정토회에 들어와 지낸 십 년 정도 되었습니다.

2. 인도JTS에 활동가로 파견되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전부터 인연이 된다면 꼭 가고 싶었습니다. 빛 값으려 간다는 마음이랄까요. 지금까지 복 많이 받고, 풍요롭게 살았으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고기 먹고 에어컨 틀고 기름 쓰고...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니까요.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그동안 살면서 껍데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하다 보면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벗고 다시 원래 저의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또 제가 그간 맡았던 여러 일들을 다른 분들이 맡아주셔서, 제가 인도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이티에스와 함께 하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신 지도법사님, 유수스님, 법사님, 도반들께 감사합니다.

3. 인도로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웃음)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야겠죠. 저는 잘하는 게 없구요.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인도에 갈 준비는 잘 하셨나요?

우선 인도 말은 전혀 모릅니다. 가봐야죠. 개인적인 짐은 최대한 적게 챙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많더라구요. 옷도 한 벌씩만 챙겼는데도 짐 챙길 때마다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재(27)님의 이야기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1. 제이티에스와 함께 하기까지 이야기가 궁금해요.

저는 올해 스물일곱 살이고 원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2010년에 어머니의 권유로 정토회에서 하는 '깨달음의 장'에 참가해서 JTS라는 국제구호NGO와 국제구호활동, 해외봉사 등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백일출가 때 NGO실습을 JTS에서 했습니다. 그때 최기진 총무님께서 JTS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좋은 점을 접할 기회가 많아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인도JTS로 파견되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인도로 꼭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국내JTS도 괜찮고 일단 봉사활동 자체가 하고 싶었습니다. 인도JTS의 여러 영상이나 사진 자료, 활동 기록 등을 보면서 인도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3. 해외파견을 앞둔 심경이 궁금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갈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JTS에도 감사하고, 백일출가 때 책임자이셨던 최동호님과 함께 가게 되어 더 좋습니다.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최동호님 옆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일 마무리 잘 하고 몸 관리 잘 해서 가서 아파서 남한테 폐가 안 되도록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4. 국내 JTS사무실에서 몇 달간 함께 일하셨는데 그동안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잘 챙겨주셔서, 함께 일했던 분들께 모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내에서 맡았던 업무를 제 시간에 잘 못 끝내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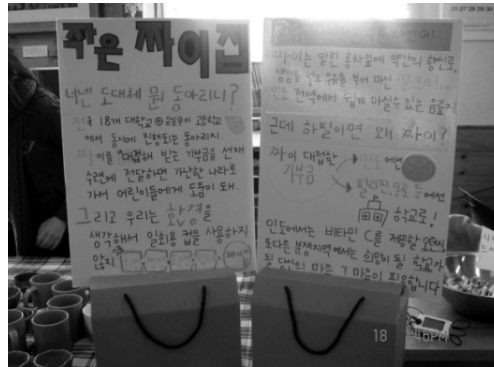
5.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잘 점검해 보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집중하며 활동하고자 합니다.

모여서 부채를 만들고 있다.



안내 대자보를 만드는 모습



작은 짜이집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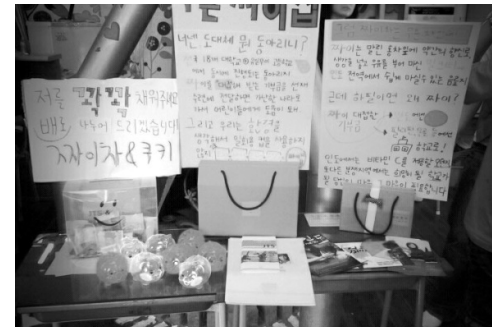
작은짜이집의 뿌리 JTS 일일 짜이 부스

작은짜이집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한 학기에 두 번, 인도 차 짜이를 직접 끓여 대접하는 모금 부스를 연다. 모금액은 JTS를 거쳐 제3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주로 오렌지나 망고 등으로 바뀌어 어린이들의 비타민 공급에 쓰였고 특히 2012년에는 우리의 요청으로 '필리핀 아동 도서, 교과서 지원'에 쓰였다.

함께하고 글쓴이 산청 간디학교 3학년 김민정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부스를 피하기 위해 매번 테마를 정해서 새롭게 기획한다. 또 부스 장소나 방법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부 받고 결과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

(1) 시골벽적인 축제의 심터, 판매가 아닌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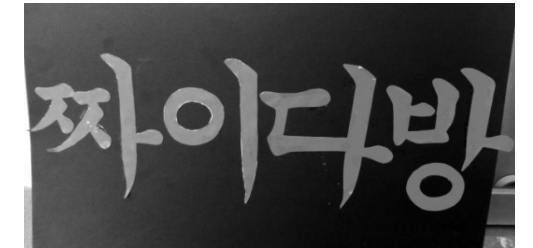
간디학교의 축제는 물풍선 던지기, 동전 던지기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게임을 하는 부스도 있고 빵을 파는 카페, 플래시몹, 풍물 행진 등으로 요란하고 활기차다. 방문객들에게 무언가를 팔고 수익금을 내는 부스가 많은데 작은짜이집은 일부러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공간을 잡아 심터를 운영한다. 굳이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다.

모금의 목적 안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자보, JTS 알릴물, 메뉴판, 작은짜이집 소개 책자 등을 전시해 놓고 방문객이 묻기 전에는 가능하면 먼저 설명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기부가 강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메뉴로는 직접 끓인 인도 차 짜이, 동아리 부원들이 집에서 가져온 여러 종류의 차, 사회적기업-해피쿠키에서 지원 받은 롤케이크와 유기농 쿠키가 있다. 메뉴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먹고 싶은 것을 대접받고 자유롭게 쉬다가 마음 가는 만큼 모금함에 기부하는 식이다.

(2) 축제에 모토에 맞춘 테마-프로그램 정하기

매 축제마다 학교 식구들이 함께 축제 모토를 정한다. 작은짜이집에서도 모토에 맞춰 심터를 기획한

다. 예를 들어 축제 모토가 어울림일 때는 재능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동아리 부원이 아닌 친구들과 부스를 함께 했다.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방문객들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타로 점을 봐주었다. “그뎨 그랬지”가 모토였던 복고 축제에서는 “짜이다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부스를 했다. DJ부스를 만들어 놓고 음악을 트는 등 옛날 다방 같은 분위기를 내려 노력했다.



(3) 작은 공연들

축제에서처럼 거창한 무대는 아니어도 방문객들이 쉬며 볼 수 있는 작은 공연들도 준비했다. 동아리 부원이 하기도 했고 대부분 학교 친구들을 미리 섭외했다. 팬플룻이나 대금 같은 특별한 악기를 연주한 친구들도 있었고 오카리나와 쥘베 합주를 하기도 했다. 수준급의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연주에 모두가 집중하기도 했고 짜이다방을 꾸미고 거기에 맞춰 통기타를 연주하며 보랏빛 향기, 너의 의미, 붉은 노을 같은 노래를 불렀을 때는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모여 즐거워하셨다.

(4)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스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희망, 생명, 환경, 심터 같은 가치들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으면 하는 고민을 많이 나누었다. 예를 들어 기부문화에 대한 고민과 편안한 심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기부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방문객이 원하면 읽을 수 있는, 어떤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 대자보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부채들

80개의 부채 모두 다른 그림, 직접 그리고 코팅했다.

친환경적인 부스를 만들기 위해 종이컵 대신에 학교 친구들이 만든 도자기 컵을 사용했다. 또 여름축제 때 부스를 하며 에어컨을 켜지 않기 위해 대신 쓸 수 있는 부채 80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쉼터에서 나눠 드렸다. 많은 회의를 하며 부스를 만들었고 축제가 끝난 후에는 동아리 부원들이 모두 모여 마음나누기를 통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생각들을 나누었다. 그런 고민들은 다음 부스를 기획할 때 피드백이 되었다.

(5) 무인부스에 도전하다.

기부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대안으로 무인 부스를 이야기 했다. 학교를 다니며 다른 친구들이 운영했던 무인매점이 나간 물건과 남아 있는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폐점되었던 적도 있고 도난 사건으로 전교생이 모여 이야기할 때도 종종 있었다. 사랑과 자발성을 지향하는 공동체라지만 백 이십 명이 모여 사는 곳인만큼 익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건 모두가 인정했다. 무인부스는 너무 이른 모험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좋은 마음으로 시도한 일이 불미스러운 결과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을 피하고 싶었다.

물건을 전달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해피쿠키에서 지원받은 쿠키가 방문의 날 부스가 끝난 뒤 도착했다. 어차피 학교 사람들과 나눠먹는 방법 밖에 없으니 이번 기회에 무인 부스에 도전하기로 했다. 모금활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무인 부스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주면 되는지 전달하기 위한 소자보를 만들고 강당 복도에 점심 저녁에 나누어 쿠키를 놓았다.

모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적힌 대자보를 읽고 쿠키를 '원하는 만큼' 먹은 뒤 '마음만큼' 모금통에 돈을 넣어주면 되는 간단한 부스였다. 설치해 놓고 '들어왔던 돈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섰다. 설사 모금액이 전혀 모이지 않고 쿠키만 없어지더라도 괜찮았다. 어차피 학교 사람들과 나눠먹을 쿠키였고 공동체에 기부문화에 대한 고민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9,900원이 모였다. 모금액도 모금액이지만 지나다니면서 바라 본 학교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의미 있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은데도 "아, 나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하며 서로 돈을 빌려서 넣은 뒤 쿠키를 먹고 다 같이 나눠먹자는 부탁을 적어두었더니 정말 한 두 개만 '적당히' 가져가는 모습이 고마웠다.

쿠키가 너무 먹고 싶다며 지나가는 우리에게 뛰어와 "내가 내일 꼭 줄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큰 기대 없이 시도했던 무인 부스는 생각보다 많은 모금액이 모였고 무엇보다도 '학교 사람들의 마음'이나 '우리가 기부문화에 대해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용기' 같이 더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2012년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한마디를 담아보았습니다.

<p>저는 북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 잘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인도로 1년간 파견 나가는 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 이유진</p>	<p>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기성찰을 위한 위기와 도전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항상 최선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 - 임선호</p>
<p>저는 지금 문서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김상현</p>	<p>전 올해는 아무래도 JTS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내년에는 해외사업장에 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 김진진</p>
<p>저는 캠페인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지난번에 티 만드는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아쉽더라구요. 내년을 목표로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하길 바랍니다. - 박희완</p>	<p>저는 JTS 자료정리와 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파견 예정인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 박성재</p>
<p>캄보디아 캠페인 홍보와 모금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JTS활동에 더 힘쓰면서 해외봉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 소설</p>	<p>저는 기획팀에서 주로 차량운행 하면서 다른 분들 업무를 돕고 있어요. 내년에는 인도에 파견될 예정이고요. 좀더 나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 주연우</p>
<p>저는 올해 기억나는 일은 JTS를 알게 돼서 기뻐요. 내년 다짐을 말하자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조윤정</p>	<p>기획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홈페이지 작업인데 아직 지지부진하네요. 내년에는 확 잡아엿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 신인환</p>

북한과 미안마사업을 맡고 있어요. 올해는 북한지원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북한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 서민정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 다는데 아직 나이 먹는 게 슬퍼요. ^^ 내년 다짐 이요? 나부터 잘하자!! - 이진아

저는 기획홍보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노력으로 일들이 잘 진행될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JTS와 함께해주세요. - 김혜원

저는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올해 저는 마음을 크게 내서 사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JTS에서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1년간 만났던 모든 분 들에게 감사합니다. - 조경아

저는 회원관리팀 총괄업무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 에서도 마음을 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후원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아주 많이많이 행복하세요!! - 최양희

저는 번역과 교육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서 좋았는데 아쉽게도 목표로 한 것보다 못 미치는 점이 있었어요. JTS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칭찬꺼리겠네요. 내년에는 지금 하는 일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은

저는 JTS가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분들께 후원금 납부 연장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밝은 목소리로 일하겠습니다. 후원해주 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미영

저는 주로 영상편집을 하고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힘내서 계획했던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 하겠 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나리오로 데뷔하고 싶어요. - 김효선

지금은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올해는 운동을 시 작하게 돼서 좋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야겠죠? JTS에 나온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난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 김관배

재정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원회 원 여러분께 JTS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 리고 싶어요. 올해는 북한지원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 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이미경

저는 기획팀에서 신규활동가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 습니다. 2012년의 마무리를 JTS에서 할 수 있어 기쁠 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열정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배수영

기획 홍보팀에서 캄보디아 캠페인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JTS에서 일한지 이제 두 달여 밖에 안 되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는 무척 바쁘게 살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니 기분이 묘하네요. 내년에는 좀 더 여유있고 부드러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여운

올해는 총무팀 일을 하면서 원활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완성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최기진

2012년 JTS 자원봉사자들이 뽑은 3대뉴스입니다. - 편집부

1. '12년 대북지원사업

JTS는 지난 5월 북한에 있는 50여 개의 고아원 · 양로원 · 장애학교에 3개월 분의 두유와 이유식을 보냈습니다. 9월에는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식량으로 밀가루 500톤을 전달했습니다. JTS에서 전달한 식량은 수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인 성천과 안주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수해지원으로 전달된 밀가루 500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끊기고 나서 처음 지원되는 식량이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굶주리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소중한 양식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2. 미안마 신규 사업장 개척

올해 3월 김성현 활동가 파견과 함께 미안마 JTS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안마 현지에 혼자 파견된 김성현 활동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지 활동가 모집과 활동지역 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해를 입은 미안마 짜웅공의 흘레웨 마을과 탄터빈 마을에 긴급구호 활동으로 가구마다 25kg씩 총 481가구에 쌀을 지원 했습니다. 미안마 JTS는 지금 7명의 상근활동가와 3명의 비상근 엔지니어 활동가가 활동하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3. 후원프로그램 개편

후원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후원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자신의 후원 내역을 볼 수 없었고, JTS 사무실로 전화해 변경사항을 확인해도 그 내용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후원자가 직접 후원정보를 수정하고, 언제나 후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전 시스템에서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을 하셨던 정보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본인인 증 절차를 거치면 과거의 후원내역 조회와 후원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했던 어린이날 캠페인, JTS 방송예술인 모임인 '길벗'과 함께한 거리모금 행사, 올해 새로 파견된 6명의 해외활동가와 2명의 파견 예정자 소식, 4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KBS주최 나눔+대축제 행사와 필리핀 대홍수 긴급구호 사업등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순위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JTS에서 국내, 해외 봉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 강윤모 김관배 김난술 김성현 김서진 김선옥 김성현 김신아 김세현 김정준 김진진 김영숙 김혜원 김효선 권상례 류 미 문태훈 박동현 박리나 박명송 박병수 박성진 박성재 박영선 박유영 박준 박희완 배명숙 배수영 배혜정 백솔기 뿌리양가 서동우 서민정 소설 송수명 송지홍 송현자 신인환 신정화 안재현 양수지 양창희 오성근 오은경 유미영 유미옥 이미경 이세형 이원석 이유진 이지은 이진아 이재곤 임선호 임지혜 임희성 정가영 정수진 정소연 정윤미 조경아 조선미 조윤정 주연우 최기진 최동호 최선희 최양희 최지정 한성호 한여운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India 인도



컴퓨터수업 중 (특별수업)

1. 독일에서 오신 한국인 자원봉사자 특별수업

8월 20일에서 9월 5일 독일에 사시는 김선희, 이희정씨가 2주 정도의 휴가기간을 이용해 JTS스태프와 교사, 중학생들에게 컴퓨터 수업과 영어회화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컴퓨터 수업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MS워드와 엑셀을 마스터 하였습니다. 특히 초급반은 컴퓨터를 켜 줄도 몰랐는데 수업 이후 시험 문제지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과 수업을 들었던 이곳 인도인들 모두 100% 만족했던 특별수업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교사, 중학생들

2. 8월 24일 초등학생 소풍, 9월 1일 중학생 소풍

이번 소풍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년별로 장소를 다르게 정하여 다녀왔습니다. 저학년은 자그디스푸르 마을, 고학년은 두르가푸르 마을과 티벳템플을 다녀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보물찾기, 퀴즈대회, 장기자랑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었습니다. Barabar 동굴로 갔던 중학교 소풍은 모든 교사와 중학생이 한 자리에 어울려 즐거운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고, 힌두 사원에 가서 기도도 드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취락단 시험으로 풀베기를 했던 4학년 남학생들의 모습

3. 9월 10일 ~ 19일 중간고사 실시

수자타아카데미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취락단 시험입니다. 반별로 구역을 나눠 학교 이곳 저 곳을 청소합니다. 은근히 점수에 민감한 아이들이 필기시험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취락단 시험. 덕분에 학교가 훨씬 깨끗해졌다고 하네요.



캠커타 빅토리아기념관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8학년 학생들

4. 수학여행

9월 19일에서 22일 8학년 캠커타 수학여행을 캠커타 빅토리아기념관, 박물관, 과학도시, 천문관, 동물원까지 이들 동안 쉬지도 않고 걷고, 또 걸었던 수학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9월 28일에는 5학년 파트나 수학여행이 있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비하르의 주도인 파트나까지 무려 4시간 30분. 가고 오는 데만 무려 9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거의 쓰러질 것 같던 아이들이 동물원, 천문관, 박물관에 가자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10월 6일 3학년 라즈기르 수학여행으로 날란다대학, 죽림정사, 온천, 자이나 사원 등에 다녀왔습니다.



간디기념일 행사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실력을 뽐내는 아이들

5. 스승의 날 행사, 간디기념일 행사

9월 5일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조그만 선물에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한 공연으로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10월 2일에는 간디기념일 행사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시상식(개근상, 우등상, 간디 기념일 글짓기 대회 수상)이 있어 더욱 즐거웠던 행사날이었습니다.



부녀재봉반 수료식

6. 부녀재봉반 수료식

10월 3일 부녀재봉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평균 출석률 94%로 수강생 12명 모두가 수료하였습니다. 개근상 과 정근상 외 우수상으로 4명에게 재봉틀을 수여하였습니다. 기술우수자에게는 수자타아카데미 유치원 교복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초급반 수료생 중 6명이 더 나은 기술 향상을 위하여 중급반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생필품을 전해받고 기뻐하는 마을 주민들

7. 구호품 보시

- 9월 15일 베트남 불자 (LAO TRANG PHAP HOA) 방문
약 500가구 주민들에게 쌀, 오일, 소금, 설탕, 비누 등의 생필품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 10월 23일 베트남 불자 (LIEN HOA BUDDIST TEMPLE) 방문
학교 아이들과 병원 환자들을 위해 5,000달러와 함께 의류,약품, 문구류 등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 10월 22일 의정부 옹해사 지성스님 방문
약 350가구 주민들에게 쌀, 달, 땅콩, 슬리퍼, 티셔츠 등의 생필품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알라원 방문 후 찍은 단체 사진

1. 1박 2일 프로그램 진행

JTS는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라와곤 학교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블루안 학교에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키다마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날은 저학년 교실에서 교사와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타갈로그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 동화책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퀴즈대회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리코더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친 후 학교 앞 공터에서 작은 체육 활동을 하였습니다. 둘째날 아침에는 과실수 관리팀과 함께 작년에 지원한 나무 주변에 풀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닐라 홍수피해 긴급구호 사진

2. 타푸난, 인라보 학교 건축 신축 진행

9월 28일 타푸난에서, 9월 29일은 인라보에서 본격적으로 학교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마을 모두 학교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제때 다 잘라 놓았습니다.

덕분에 공사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JTS의 기술담당자인 미오와 JTS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난, 핑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초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 만드는 작업을 샘플로 만들어 알려주었는데 이 마을의 목수 뿐만 아니라 리더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키다마 학교 증축 현장 사진

3. 2013년 학교 건축 신축 후보지 답사

2013년 신축 후보지 답사로 아풀란, 킬라오라오, 파나푸난을 방문하였습니다. 1차 사전 답사로 10월 1일과 2일 세 지역 모두 방문하였고 10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2차로 이원주 회장님과 함께 아풀란, 킬라오라오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파나푸난은 JTS의 학교 건축 조건에 맞지 않아 2차 방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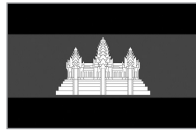
첫날 방문한 아풀란은 무슬림 마을이었는데 근처의 다른 주민들까지 와서 이원주 회장님을 맞이하여 학교 건축에 대한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킬라오라오 또한 해당 공무원 5명이 참여하여 학교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 이원주 회장님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마카피리 고등학교 건축 사진

4.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섬 JTS 센터에서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다물록 시장님과 JTS 필리핀 대표 이원주 회장님을 비롯하여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2년 진행되었던 고등학교와 보건소 건축 공사를 평가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Cambodia 캄보디아



주교육청 주관 NGO 연간회의

1. 라타나끼리 주 교육청 주관 NGO 연간 정기 회의 참석

9월 7일 라타나끼리에서 현재 활동 중인 교육 관련 NGO들과 주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협의점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회의

2. 9월 10일 주민 참여 회의

주민 참여가 저조한 마을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تون학교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학교 관리 및 위생교육

3. 10월 4일(목) 타뱅크지역 새학기 개학식 참석

캄보디아에서는 10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때 지역 내 가장 큰 학교에 모여 합동 개학식을 합니다. 캄보디아JTS도 여기에 초대받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웁찬 학교의 현재 진행상황

4. 10월 12일 타NGO(VSO)와 연계한 톤학교 특별 수업

VSO라는 현지NGO와 협력하여, 2010년에 지원한 바 있는 톤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청소, 위생 교육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타뱅크로움 공사 현장에 나와 학교 짓는 주민들

5. 캄보디아JTS 정철상 대표 현장 방문

10월 20일~22일까지 캄보디아JTS 정철상 대표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2012년 사업비 지출, 공사 진행상황 점검, 2013년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우바 마을 관개수로 공사현장

인도네시아 아잠군 띠라팡가망, 우바마을에서 관개수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주말이면 연인원 50여명씩 참여하여 관개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S에서 자재를 지원하고 "고통노동"이라는 마을 두레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과거 우기시 가옥과 논이 침수되었던 마을이 공사 이후에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yanmar 미얀마



짜웅공 타운십 쌀 지원 현장1

1. 미얀마 수해 긴급구호

미얀마는 8년 만의 홍수로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 미얀마JTS는 아와디(Ayewarwaddy) 주(州) 짜웅공(Kyaunggon) 타운십의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해당 두 개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접근이 어려워 구호의 손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마을입니다. 현지인 포함 11명의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481개 가구에 각각 쌀 25kg을 전달하였습니다.



짜웅공 타운십 쌀 지원 현장2

2. 짜웅공 타운십 다리 및 학교 복구 MOU 체결

짜웅공 타운십 오피스로부터 홍수로 인해 파괴된 다리와 학교의 복구 사업을 요청받았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와 함께 공무원 및 주민 회의를 통해 MOU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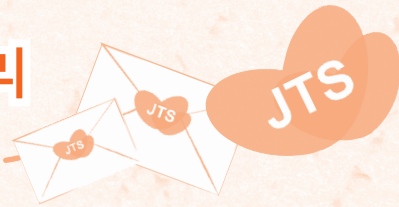


미얀마 현지 자원봉사자 미팅

3. 탄터빈 타운십 학교 지원사업 MOU 체결

양곤(Yangon) 지역 탄터빈(Htantabin) 타운십의 깔라퐁 마을·뭇루공 마을의 학교 식수 지원 및 교내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기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JTS-마을 주민 간 MOU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후원인의 소리



오래 전부터 마음만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깁니다!!
-김대정-

법륜스님의 힐링캠프보고 말씀이 너무 좋아
인터넷 검색하여 가입했습니다.
-류경아-

BTN 불교방송을 통해 법륜스님을 알게 되고 법륜스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갖고 보니
제이티에스를 알게 되었네요!
-박기일-

김여진씨 인터뷰 책을 읽고
이 단체를 알았습니다!
-문세린-

북한주민과 세계빈민 돕기를 함께 하는
후원단체를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문영진-

배우 한지민씨의 봉사활동을 보고 항상 참여
하고 싶어 하다가 이렇게 참여합니다~
-전희경-

즉문즉설 잘 들었습니다. 좋은데 써주세요.
-양시황-

노희경 작가님의 책을 사보고 문명퇴치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나래-

사춘기 두 딸이 참 힘들게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아파하는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가난한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경-

지금 삶이 조금 힘이드는 사람에게 나의
조그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승욱-

백중회향하면서 굶는 북한아이들에게
식량이 전해지길..
-이영주-

가을이 오네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김경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
-조미순-

늦둥이 은결이가 북녘 친구를 사귀고 북녘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일세상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허용철-

* 인도 결핵퇴치 후원사업을 종료합니다.

인도 결핵퇴치 사업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아, 사업을 진행했던 동게스와리 지역의 결핵환자 대부분이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결핵관리 시스템을 인도의 국가결핵관리 프로그램인 RNTCP (Revised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 Program)로 인계하여, 이제부터는 인도 정부로부터 직접 결핵 치료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여기에서 인도 결핵퇴치 후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도 결핵퇴치 사업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도 결핵퇴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후원자님께서 후원해주시던 후원 사업은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인도 및 제3세계 후원"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후원자님께서 제이티에스의 다른 사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쪽으로 후원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제이티에스 홈페이지(www.jts.or.kr)의 후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정하시거나 제이티에스 회원팀(02-587-899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사업으로 변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공제영수증 발급 건

그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2012년 공제영수증을 우편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jts.or.kr)에서, 기존후원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어 출력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부터 후원프로그램이 개편되어 기존후원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드셔야합니다)

해외JTS 후원금

2012년 7월 01일 - 2012년 9월 30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김민규	100,000
김보영	10,000
김선남	50,000
김소연	10,000
김순중	50,000
나경주	50,000
남승욱	40,000
신경선	3,000
아이지예뎀케어	50,000
영스타일	3,000
이문금	100,000
이석경	150,000
장혜진	100,000
정지윤	100,000
조한석	30,000

미국 JTS 7월

임선희	\$30
박현수	\$180
무주상	\$119
한규희	\$100
권석현	\$100
김선화	\$100
권영미	\$100
백보영	\$100
K&L ENTERPRISES	
OPERATING ACCOUNT	\$1,200.00
김원태	\$30
송호성	\$30
박숙현	\$100
Amindra Gurung	\$80
	\$40
마이클양	\$31
배상욱	\$30
김명	\$200
LA jungto	\$3,491.00
임금이	\$100
김숙현	\$90
임선희	\$500
박덕순	\$500
Freud Poe Park	\$80
무주상	\$240
창년MT	\$35

미국 JTS 9월

Young Macaron	\$10,000.00
LA정교회	\$53
한혜진	\$100
이규염	\$100
무주상	\$226
정수길/홍희선	\$50
Lauren Carre	\$50
엘에이정교회	\$14,311.50
손정훈	\$100
박숙현	\$100
무주상	\$223
김영호 유정희	\$10,000.00
배경란	\$100
이연순	\$300
김윤진	\$100

미국 JTS 8월

최선욱	\$1,450.00
김상태	\$300
송호성	\$30
오근영	\$50
김원태	\$30
최만성	\$20
원윤경	\$20
전정숙	\$200
임선희	\$60
이동근	\$50
Michael W Yang	\$31
Freud Poe Park	\$80
한혜선 한윤홍	\$100
노미정	\$20
김명	\$300
이학우	\$300
최영태 김성순	\$200
김동석 나은영	\$120
이문희클럽	\$60
김명	\$100
김윤진	\$100
이규염	\$100
한혜진	\$100
박숙현	\$100
안미영	\$100

Freud Poe Park	\$80
최만성	\$20
휘영래더립	\$20
이동영	\$300
Ran Gregoire	\$100
송호성	\$30
홍희선	\$50
김원태	\$30
백은영	\$600
Michael W Yang	\$31
김선화	\$100
김윤진	\$100
최경숙	\$30

방콕 JTS

무주상	\$100
최만성	\$20
박승웅	\$30
시애틀정토회원	\$362.47

마닐라 JTS

봉금례	\$100
-----	-------

필리핀 JTS

최찬익, 사진희	\$100
배명숙	\$2,412



나눔저금통 현황

2012년 8월 01일 - 2012년 9월 30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거제

시민의원 60,300 원마트젓병 17,400 이행정 24,000
정혜영젓병 18,000 SC은행거래 74,830

대구

구남보건고교1-1반 27,580 김민성 21,350 김시영 18,320 김명옥 23,650 김은희 36,930 김지철 45,020 김태형 10,000 남준호 30,220 무명 29,540 무명 32,190 무명 25,740 무명25,810 무명 36,280 무명4개 136,220 박남주, 최성훈 31,020 박미숙 13,090 박중휘, 박종선10,180 염정희, 백경숙 50,650 염정희, 한혜은 72,610 오원숙 16,240 오인경 12,820 이원준10,450 임금실62,980 임금실 57,700 장선욱 35,470 장선욱 35,080 정준호 43,670 칠곡건비미용실 25,000 하수연 21,710 한옥주 42,560

대전

금송농원 394,480 김어진 7,500 김영우 51,660 돼지 저금통 363,220

동래

김래희 8,600 김예진 11,470 김우진 10,990 김주환 24,050 남산초4-1반 2,440 남지현 45,270 동래삼계탕 31,200 류숙희 34,110 무명 20,820 박민재 5,060 박정은 1,900 박준우 9,160 박지인 12,480 방지현 1,000 손숙연 31,980 손애원 28,950 송유나 660 이남선 33,530 정지현 13,120 정나영 16,180 최정숙 200

마산

무명 58,270 무명 45,290 박삼숙 25,880 산인면새마을회장 9,010 조수빈 46,700 코오롱방글이 16,480 코오롱우리마트 19,560 코오롱피자빙고 67,410 황용일 24,540

밀양

박호진 30,370 저금통 10,040 조이공부방8월 43,310 조이공부방7월 50,200

서울

구산중학교11개 113,150 (303김기태 15,350 303서선영 11,150 303이현서 13,000 304류희현 7,690 304박고은 6,370 309지민관 9,500 310윤정우 13,860 311서영균 3,010 311오원중 2,370 강현숙선생님 15,690 이현성 15,160 권윤정 56,770 김덕현 32,930 김미경 24,590 김미경 36,560 김미호 26,860 김병근 28,140 김병근 30,590 김신향 24,150 김재현 7,750 김중권 80,370 김중권 37,850 김중권 35,190 김주은 25,560 김준서 164,700 김

현서 217,980 김현애 35,160 김희태 16,600 무명 22,120 무명 2,520 무명 33,570 무명 19,030 무명 50,600 무명 25,760 무명 18,050 무명 22,190 무명 35,650 무명 2,000 무명 33,600 무명 19,800 박상욱, 최혜연, 최순정, 최정은 24,280 박양식 28,560 박은정 31,430 소예연 20,690 손명숙 29,820 안낙천, 최갑자 51,070 연명옥 33,610 오선욱 35,020 유지연 33,550 유향숙 19,900 이광민 57,490 이덕기 20,810 이덕기 31,470 이성하 39,950 이승현 35,290 이영화 17,700 이영화 18,170 이준호, 이윤주 27,590 이현경 17,890 이현경 20,020 임은주 11,310 임지형 25,000 장명옥 14,810 장명옥 27,620 정성근 42,260 정진영(분당) 25,140 조종상 26,810 주민준 22,860 차성현 34,790 최승국 17,370 최우석 70,560 최윤역 53,120 한원수 12,060 허지 30,560 홍경미 30,140 황영자 18,000

수원

고재필 18,050 김무명 18,300 동성중 16,250 무명 83,930 신의찬 40,210 한태용 26,910

울산

김기훈33,250 김길주 35,050 김보민 14,860 김세영 29,180 김연수, 김나연 46,800 김명주 30,900 김일윤 24,230 대방낙지명품점 3,330 무명 43,100 무명 46,200 무명 43,650 무명 60,240 박기택 60,720 박동욱 53,110 박말숙 15,480 박은선 29,900 박정순 18,570 선암화장품 76,750 센레스토랑 11,010 울산북민원실 28,460 울산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63,660 전춘우 31,350 정정영 30,990 조춘희 13,670

원주

무명 33,910

은평

무명 71,490 박명순 125,350 박형준 29,090 신숙경 21,310 신정희 20,100 이순주 12,250 조정숙 27,720

제주

홍옥순 41,510

제천

무명 63,190 신백동파리바게트 25,760 유희숙 30,130 이창우 9,890 정지은, 정두영 30,810

창원

안종제 12,430 전찬웅 19,870 하영주 26,850

청주

기홍진 34,010 김동현 19,670 김경희 33,490 김용경 34,390 대산의원(이항휘) 40,510 무명 22,180 박준자 37,630 손나영 107,330 아하과학교실 47,250 오해빈 32,360 윤귀예 49,770 한동섭 39,440

해운대

강소담29,830 김영식 59,280 김영식 66,650 무명 39,770 무명2개 68,210 무명5개 216,970 박순애 12,780 서정희 13,940 손자연 36,400 송진영 25,020 이재영 27,900 이현주 30,200 장순자 21,680 장재영 9,330 조도자 21,260 조복연 17,840

기타

99차일개저금통 987,000 고미야 9,100 권정연 25,350 김미옥 19,860 노금남 24,710 노시춘 26,620 무명 8,740 박재휘 45,470 백정중 33,300 신유정 14,900 심지윤 56,400 양지원 20,190 윤암 고3-1 107,340 이윤호 13,800 정재현 16,290 최원복 68,750 탐앤탐스(르네상스점) 234,770 한승영실래 14,110 한승영실래 38,550

거리모금 현황

2012년 08월 01일부터 2012년 09월 30일까지
경남하동저금초2학년 101,690 구산중305반 52,940 구산중학교 45,460 대구 327,650 분당 110,330 분당청소년거리모금 77,100 삼각산고등학교나비반 215,130 서울 1,373,330 수원 47,850 울산 240,440 코오롱사우나 152,0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